

노동자 생계박탈하는 자본 악동

코리아 타코마 농성장을 찾아

동탄암 분쇄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월급을 못 타니 집에 못 들어가네요. 월급을 못 타니 집에 못 들어가네요. 월급을 못 타니 집에 못 들어가네요."

방위산업체로서 해군합정을 만드는 코리아 타코마는 김종락 사장이 설립한 산업체였다. 6개월간 임금에 체불되고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던 타코마의 경영난은 김종락 사장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를 기피하고 은행 차입금에만 의존한 것에 기인해 한달에 7억이라는 막대한 총임금과 맞먹는 금액이 이자로 지불되어 재정난을 겪게 된 것이다.

또한 1980년 5·17당시 김종락 사장이 권력형 부정부패자로 몰려 주주의 49%를 환수당한 후에도 여전히 대기업의 운영을 해 볼필요한 지출을 감수했던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김종락 사장은 타코마의 운영난이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건비의 상승을 볼 때 실제로 조합원이 임금인상보다 높은 임원, 경영층의 인상이 동종업체의 5배나 높은 인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II. 한진으로의 인수 조건

이러한 배경으로 작년 12월에는 김종락 사장이 재산권을 포기하고 6개월간의 임금체불만 남긴 채 마산 지방법원에 타코마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법원에 서 임명한 법정관리인이 타기업으로의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한진그룹에서 타코마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수 조건으로 노조집행부의 사퇴를 내걸었다. 지난 2월 11일 노조집



지난 15일 서울캠퍼스 수서비리 규탄 집회에 타코마 노조원이 참가 투쟁 보고 및 전대를 호소했다.

금기가 지난 2일 4백50여명이 상경해 한진그룹 정문앞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하고 가두선전전을 시작했다.

의식주 생활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과 전노협을 바꿀 수 없다'는 의지로 싸우고 있다. "지난번엔 한진에 항의하러 갔다

숫자를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정진일씨는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조합장은 평균 나이 38.5세로 다른 조합장보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편이라 장기적 전망을 세우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라며 정진호 노조 총무부장은 한진측에서 가족들을 협박, 회유하여 상경해 있는 사람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III. 노동해방의 그날을 위해

선전전을 마치고 돌아와 내일의 투쟁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한 노동자의 머리맡에 붙어있는 대자보가 눈길을 끈다. "거짓으로 가득한 자본가와 정부의 논리. 이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노동자의 침묵'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저들의 거짓논리에 속지 말고 나와 가족이 인간답게 먹고 살수 있는 세상. 임금체불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상경투쟁을 기필코 승리, 쟁취 할 것이다."

(방현기 記者)



여의도 평민당사에서 16일째 농성중인 타코마 노조원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싸우고 있다

"임금과 전노협을 바꿀수 없다" 방만한 경영으로 한달 은행이자만 7억

한진은 한진측의 부당한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노조원의 생활고 해소를 위해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법정관리인은 집행부의 마창노련 탈퇴까지 강요하며 합의사항을 반복하였다. "현행 노동법에는 노조승계와 고용승계, 체불임금의 지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측은 체불임금을 미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 내지는 와해시키려고 합니다."라고 타코마 노조원 정진일씨는 이번 문제가 국부부의 선박발주대금 1백80억원의 미지급을 유도한 정부와 한진측이 전노협, 마창노련의 중립적합을 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타코마 노조원은 평민당사 복도에서 함속하며 쉼이 떨어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기본적인

가 50여분만에 전경들에게 연행돼 경기도, 난지도등지에 버려졌던 이요희병렬이에게 우리 5백명의

중앙도서관 자료비치 미비 정기간행물

'정보화시대'가 일컫는 시대의 추세에 발맞춰 대학 도서관의 정기간행물 역할도 높아져왔다. 이에 본교 중앙도서관도 문학, 미술, 음악, 체육, 경제, 정치, 역

사, 전자, 의학 등 국내외 학술·문화·생활·사회관계 전공관련간행물과 일반교양간행물 총 1천5백여 종을 비치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구입 1년 총예산 2억9천만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정기간행물은 각 학과 사무실로 해당신청 간행물들을 의뢰해 수령하거나, 도서관 자체내에서 판매부수나 잡지와 학술과의 연계정도를 따져 비정규적인 간행물

는지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수렴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또한, 도서관측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서출신 전문인마저 부족한 형편이다.



관심비해 간행물 기대 못 미쳐 신청절차 개선으로 의견수렴 요구돼

물을 구입한다. 그러나, 정작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학생들에게는 희망정기간행물 구입신청서조차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기간행물 신청을 어떻게 하

이는 정기간행물 구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학생들과 도서관측의 괴리 현상을 빚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들어 학생들은 사회과학지가 부족하다

고 얘기하는 반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도서관이 휴식공간 역할로 공부하다 머리를 식힐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학과' 학생들에게는 의무디자인 하는데 도움이 될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만화책까지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도서관 정기간행물들은 전공과 취업공부에 시달린 학생들이 현시각의 정점에 관한 리포트 제출등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많이 찾고있다. 여기서 지나친 개인이용물 수준인 생활잡지는 대중적이지만, 전문자료에 일반 간행물로서는 팔로 가치가 있는 판권잡지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 제반문제를 개선함에 있어 학생들은 학술·사회인식에 한발 앞서 고민하는 대학인으로 '학문의 장'에 주체로서 우뚝서야 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 보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측도 학문과 실천을 겸비하는 대학이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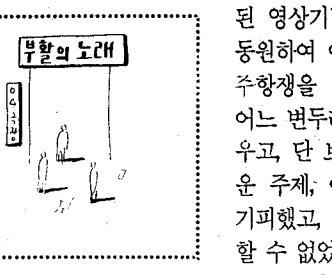
(이진환 記者)

'유령'과 '부활의 노래'

우리는 누구나 어릴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하나쯤은 기억하고 있다. 눈이 파란 인형에서부터 방바닥을 달리던 자동차까지 주로 손으로 만지는 것이 대부분.

그 후 시각과 도구가 달라지면서 그림책, 더 나중엔 동화책이 우리의 놀이시간을 채우고, 가끔은 국민학교의 넓은 운동장도 좋은 놀이거리를 제공해 주곤했다. 조금 더 후 영아언어의 엄청난 기억력과 딱딱한 수학공식에 치지고 성적표의 수치를 쫓으면서 피곤해진 우리는 좀더 생각하기 쉬운 텔레비전 화면을 찾기 시작했다.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 화려한 조명 아래에 선 가수의 몸짓이 어느정도 부가한 머리를 식혀주는 듯 했다. 결국 우리의 놀이거리는 잃어 야 하는 '화면'에서 보는 '화면'으로 큰 변화를 치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T·V에서 그치지 않고, 그후 오락실의 수많은 화면들, 안방의 비디오 화면에 이르기까지 화면의 위력은 급속도로 커져갔다. 영화 역시 화면이고, 그래서인지 앞서 말한 놀이거리의 변화가 영화에까지, 소급되고 있는 듯하다. '따분한데 뭐 신나는 영화나 한편 볼까'하

는 생각에서부터 극장을 찾게되고, 이때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자동차들의 질주, 기관총이 난무하는 영화가 좀더 볼만한 것이 된다. 차분한 분위기나 인생을 얘기하는 우리영화보다는, 탄탄한 자본 위에 엄청난 상상력이 동원되는 외국영화가 훨씬 효능있는 것으로 복제된 것이다. 어느덧 오락성이 강조되어 하나의 놀이가 된 영화는 그 오락성을 수입



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결국 우리영화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영화의 침체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한다. 파행적 배우구조, 극장주의 횡포에 가까운 상업주의, 실제로 단 며칠이라도 더 간판을 올리기 위해 제작사측은 뒷돈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몇몇장에 달

하는 극장표를 사 주어야 하는 헤프닝까지 연출한다. 여기에 '한국영화는 원래...'라는 자기방각으로 '화끈한' 영화만을 찾는 관객까지 가세해 결국 우리영화의 실 땅은 멀어지는 것이다.

지난 겨울로부터 주요도시 극장 중심가를 혼돈하게 만든 '시랑과 영혼(The Ghost)'은 현실을 배제한 사탕이나 영혼을 주제로 발달된 영상기법을 이용해 1백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아직 상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항쟁을 사실적으로 다룬 '부활의 노래'는 어느 번두리 극장에서 관객 1만명을 다 못채우고, 단 보름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다. 무거운 주제, 어설픈 영상처리와 영화의 관객을 기피했고, 극장주로서는 수지 안맞는 장사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관객은 좋은 영화를 볼 권리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영화를 만들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본의 제공은 관객의 몫으로 남는다. 오락이 아닌 예술로써, 즐김보다는 감상하는 영화로서의 관객의 시각교정부터 이루어져야겠다.

SAMSUNG Electronics advertisement for the 11th Samsung Software Competition and Contes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and holding a glowing lightbulb, symbolizing an idea. The tex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mpetition, priz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amsung Computer Centers across various regions.

제11회 삼성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한국 컴퓨터업계의 '떠오르는 태양'을 찾습니다.

입제 1위의 삼성컴퓨터가 국내 최대규모의 컴퓨터대항전 제 11회 삼성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인재발굴 및 육성, 컴퓨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총 1억 8천만원의 장학금과 부상이 마련됩니다. 국내 컴퓨터 산업을 선도해가는 삼성과 함께 당신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컴퓨터 애인들을 위한 대축제 - 삼성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공모전

- 참가부문: 중·고·대학 (전문대, 대학원) 일반부문
- 응모분야: 기초 S/W, S/W 응용, 인공지능, 응용 S/W, 교육용 S/W 등 5개 분야
- 대회일정: 신청서 접수: 3/18~3/30 (전문대, 지방영양소, 협력학원) / 심사: 4/22~5/2 (본사교육부, 지방영양소) / 당선자 발표: 5/27 (중앙일보, 개별통지) / 전시 및 시상: 6/2 (잠실내체육관) / 시상식: 6/2 (잠실내체육관) / 시상금: 1,000만원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100만원 (4등), 50만원 (5등) / 시상품: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참가부문: 중·고·대학 (전문대, 대학원) 전문부문
-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해당지역 지방영양소 및 본사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 대회일정: 신청서 접수: 3/18~3/30 (전문대, 지방영양소, 협력학원) / 심사: 4/22~5/2 (본사교육부, 지방영양소) / 당선자 발표: 5/27 (중앙일보, 개별통지) / 전시 및 시상: 6/2 (잠실내체육관) / 시상식: 6/2 (잠실내체육관) / 시상금: 1,000만원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100만원 (4등), 50만원 (5등) / 시상품: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국내 최대 1억 8천만원 규모의 장학금과 부상

구분	대상	1등	2등	3등	4등	5등
일반부	1.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2.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3.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4.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5.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6. 30만원 상당의 장학금
전문부	1.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2.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3.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4.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5. 50만원 상당의 장학금	6. 30만원 상당의 장학금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서울시: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부산: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대구: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대전: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광주: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전주: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충청: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경북: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경남: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
- 제주: 삼성컴퓨터 센터 (전시 및 상담매장)